



## 安定·成長·國際收支의 均衡 確立

朴 焜 東 / 東聲電線(株)·東一電子通信(株) 社長

유난히도 多事多難했던 乙丑年은 지나고 아시안 게임이 개최되는 86年 丙寅年이 밝아왔다. 묵은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때면 으레히 지난날의 반성과 회고를 하게 되며 잘 된 것보다는 잘못 되어진 것이 더욱 생각나게 되며 유쾌했던 것보다는 가슴아팠던 일이 더욱 기억 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법이다.

國內外적으로 우리의 經濟狀況은 어둡고 무거운 편이다. 先進國의 新保護貿易主義로의 復古, 말레이시아, 태국, 중공 등 후진개발도상국들의 추격 등 자칫 잘못하면 그 동안 쌓아올린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이 안팎으로 도전받는 重大岐路에 놓여있지 않나 생각된다. 輸出이 아니고는 安定과 成長을 圖謀할 수 없고 雇傭機會의 擴大없인 가장 심각한 失業問題의 根源的 解決을 기할 수 없으리라.

國內經濟懸案이란 主로 高學歷者를 중심으로 점증하는 失業問題, 구석구석에서 나타나고 있는 경기침체, 換率劣勢化에도 불구하고 둔화되고 있는 輸出構造上的 課題, 造船, 海運·海外建設 등과 같은 대단위 산업의 活路가 막막한 점 등 쉽게 해결할 수 없는 경제과제에 관한 우려가 대부분이다. 게다가 海外로부터 불어닥칠 保護貿易의 波高 또한 지난해에 비해 결코 낮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政府는 결국 금년 중에 安定·成長·國際收支均衡이라는 세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고 雇傭도 惡化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장미빛 청사진을 내놓은 바 있다. 이를 위한 민간설비투자 촉진을 위해 수출산업 설비금융을 1兆원 이상 늘려 공급할 계획이라 한다.

勿論 政府와 關聯機關의 予想대로라면 世界 全体の 今年度 經濟成長이 約 2.8%에 머물고 日本이 3.5% 水準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6~7% 線으로 樂觀視할 수는 있겠다. 이것은 엔貨 강세와 달러貨 약세로 특징지어진 昨今의 國際換率의 격변을 슬기

롭게 헤쳐나가면서 國際原油價의 下落을 발판으로 삼아 國際經常收支를 최초의 黒字轉換으로 유도한다면 可能視된다. 특히 우리 電子工業은 生産活動의 好調로 家庭用機器, 産業用機器, 部品の 生産, 輸出, 內需販賣가 昨年보다 11.1~20.3%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우리나라도 1메가비트롬 반도체 양산으로 세계 尖端技術의 前位에 近接해 가는 趨勢도 鼓舞的이랄 수 있고 우리나라의 VTR이나 Color TV 등이 저렴한 가격과 오랜 보증 혜택으로 日本의 몫을 잠식해 나가는 것도 希望的이랄 수 있는 반면 경제의 對外貨易依存度가 73%나 되는 우리나라의 全体 輸出中 約42%가 規制下에 놓여있음에 留意하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의 電子部品도 例外는 아니다. 머지않아 GSP로부터의 除外압력도 予見되고 있다. 한편 電子·電氣·通信分野의 基礎素材인 마그네트와이어(magnet wire 또는 enameled wire)를 생산·수출하는 東聲電線과 코일 및 프렌스포머의 部品메이커인 東一電子通信을 創業하여 經營하고 있는 本人으로서는 國內外 企業經營環境의 好轉을 기대하기 어려운 與件 속에서도 지난 15년간 本人과 臽 수 없는 疲乏의 約束을 지키려 땀 흘리고 있는 우리 從業員과 더불어 今年 한해를 希望과 보람으로 맞이하였다. 연초부터 納期遵守를 위해 쉬지 못하고 正常稼動에 들어갔다. 正初의 始務式(1월 2일과 4일)에서 本人의 今年度 重要經營指標를 闡明한 바 있으나 우리 會社의 新年設計와 關閑지어 몇가지 밝히고자 한다.

첫째, 우리企業을 人和團結의 바탕 위에 經營을 內実化하겠다는 것이다. 人和團結은 우리 會社의 社訓 第1條이며 企業은 곧 사람이기 때문에 組織에서의 능률과 集團에서의 人和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일이다. 혹자는 말하기를 韓國人의 資質· 잠재력은 결코 日本人에 뒤지지 않으면서도 찰흙처럼 가늘게 잘 다져지는 日本人에 비해 모래알처럼 굵어

## \* 병인년 각계의 설계를 들어본다 / 신년특집 \*

서 잘 뭉쳐지지 않는다고 한다. 이러한意味에서도人和團結의 터전마련은 중요한 것이고 허울좋은外形爲主의 成長보다 内實을 다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技術力의 伸張과 技能의 補充이다. 尖端技術의 競爭時代에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現場 干先主義를 採択하여 유능한 엔지니어를 현장에 투입시켜 제품의 개발설계 및 다양한 신제품을 기민하게 만들어내는 日本의 企業들이 마침내 世界第一의 技術立國을 만들어낸 경우를 본받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현재 생산·개발·설계하는 部品들은 國內에 선 누구보다도 먼저 시작한 分野이기에 기술축적의 힘과 기능을 보편화할 수 있는 여건이 잘 되어 있으나 이의 중요성을 재삼 강조하여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세째, 금년도 사업목표를 철저히 관리해 나아가겠다는 것이다. 1986년도의 우리 會社 外的 成長도 1985년도에 비하면 대단한 伸張을 目標로 계획되어 있고 그중에도 극세선 마그네트와이어 부문의 증설은 可히 年 6,000MS 규모의 專門輸出工場으로 손색이 없는 것으로 自他가 認知한다. 即, 0.02% 線徑의 와이어를 기준으로 1톤 생산하면 約358,000km의 길이에 해당된다.

네째, 모든 設定된 目標의 成就意慾을 鼓吹시켜 나아감으로써 年初에 한번 마음 먹은 것이 作心三

日이 되지 않고 365日을 하루같이 全職員이 總力傾注하여 目的과 符合되는 구체적인 過程을 통하여 일단 세운 計劃은 과감하게 달성하고자 말겠다는 方向을 設定한 바 있다. 또 重要部品과 素材를 担当하는 中小企業의 一員으로서 結果에 책임지는 企業경영방식을 今年부터는 導入코자 한다. 즉, 本人의 企業經營方式의 核心은 「效率의 人力管理」에 있다. 계획만 있고 결과가 없다거나 結果만 있고 責任이 없다는 것은 業務自体를 비능률적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근무의욕이나 참여의식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이기 때문에 從業員 모두의 思考의 轉換과 目標意識의 共有가 없는 限 企業의 앞날은 船長없는 배와 같이 漂流하기 십상이다.

以上과 같은 今年設計를 從業員과 더불어 다짐하면서 本人은 15年 企業經營에 또 하나의 重要한 敎訓을 體驗한다. 곧 「無信不立」이라 곧 「믿음이 없으면 쓰러지고 만다」는 것이다.

本人은 오로지 誠實하게 創意的으로 最善을 다하는 우리 企業家族의 장래와 우리나라의 基幹産業인 電子工業 育成이 必須不可缺한 部品과 素材의 扎实的 成長없이는 어렵다는 使命感 속에서 今年 한해도 例年 못지 않게 더 빠르게 될 것이라 생각하면서 그 동안 겪어온 경험과 쌓아올린 信賴를 바탕으로 第二의 創業을 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된다.

